



序

文

山の脈을 따라 그 主峯을 찾고 물의 줄기를 찾아 그 根源에 이르는 것이 하나의 順理인 것이다.
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蕃殖할 수 없는 것이 萬物이 成長하는 原理인 것과 같이 人類의 存續과 그 發展도 거룩한 先祖에 連結되는 깊은 뿌리와 歷代 顯祖들이 남기신 빛나는 業績을 原動力으로 하였을 때 비로소 期待할 수가 있다.

어느 家門이고 先祖의 빛나는 業績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지만 특히 우리 諸宋의 家門들은 歷代先祖들의 業績이 너무도 燦爛하고 壯하였다. 그 분들이 國家社會 내지는 各 家庭에 끼친 影響力이 至大하였음은 우리들 諸宋 宗親은 勿論이거니와 他 姓 人士들도 다 共知하는 事實이며 이 나라 歷史記錄에도 또한 傳하는 바이다.

우리가 이제 《韓國宋氏文獻錄》을 世上에 내놓게 된 理由도 한 마디로 말하여 저 先祖들이 빛나는 業績과 훌륭한 學行을 보다 널리 세상에 알려 그것을 보는 後孫들로 하여금 훌륭한 祖上을 모시고 있다는 데에 대한 自負心과 그 祖上들의 業績을 繼承해야겠다는 覺悟를 새롭게 하려는 데에 있다.

우리는 각 宋氏門中の 名祖들의 行績을 되도록 많이 그리고 忠實하게 收錄하려고 努力하였다. 그리고 그 資料들을 國譯으로 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努力하였다.

물론 위 文獻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애로를 겪어야만 하였고 특히 그 일을 맡은 우리들의 能力不足으로 많은 試行錯誤를 반복하여야만 했으며 그만큼 또 이 事業을 物心兩面으로 도와주신 여러 분들에게 많은 고충과 失望을 안겨다 주었다.

그러나 이제 많은 曲折을 거쳐 着手한 지 二년 만에 그 完成을 보게 되니 비록 그 내용에 疏略한 점이 많기는 하나 참으로 기쁨을 禁할 길이 없다. 외람되나마 이것이 우리 諸宋의 하나의 자랑이 되리라고 생각한다. 이 冊을 펴 보는 여러 분께서는 그 疏略한 內容에 不滿이 있으시더라도 우리의 本來의 뜻을 理解하시어 寬容하시기를 빈다.

덧붙여 本文獻錄을 위하여 全北大學校의 宋俊浩 教授와 美國 하바드大學校의 그너 博士가 合同하여 多年間 調査 研究한 結果의 一部를 快히 提供해 주신 데 對하여 깊이 感謝한다. 附錄에 있는 「와그너 宋文科榜目」 「와그너 宋生員進士榜目」 와 그너 宋 武科榜目」 등이 위 두 분이 直接 작성해 주신 資料이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文獻錄 發刊에 있어 가장 보람되고 흥분한 일은 몇 貫鄕에서 오랜 反日과 分派로 隘路가 있어 왔던 것이 이번에는 和合團結로 統合된 文獻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. 따라서 이는 子孫萬代에 繼承할 榮光된 遺産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.

反面 아쉬웠던 點도 없지 아니한 바 先代의 文獻資料에 있어 入梓申請의 漏落으로 登載치 못한 點과 內容의 未洽 不備한 點 등이 있으나 이 部分은 從次 機會를 얻어 增補할 計劃이므로 많은 諒察를 바라며 아울러 諸般事情에 依한 分帙의 遲延 등 깊은 謝過를 드린다. 끝으로 이번 事業을 위하여 直接 間接으로 도와주신 各宗中의 諸賢과 宋世煥 會長을 비롯 諸委員님께 深甚한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.

一九八三年

月

日

韓國宋氏 文獻錄 編纂委員會

常任委員長

宋柱化